

여주시, ‘허영만 기념관’ 조성 업무협약 체결

구 미평역에 허영만 작품 세계 담은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여주시(시장 서영학)가 여수 출신 국내 대표 만화가 허영만 화백의 작품 세계를 담은 ‘허영만 기념관’ 조성을 위해 18일 주식회사 허영만(대표 허석균)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허영만 화백의 예술적 성취를 기리고, 유류 철도시설인 구 미평역을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새로운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기념관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괄하고, ㈜허영만은 전시 자료와 콘텐츠 제공, ‘식객’, ‘타짜’, ‘날아라 슈퍼보드’ 등 대표작의 캐릭터 및 지식재산권(IP) 사용 허락, 프로그램 기획 자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구 미평역의 공간적 특성과 허영만 화백의 만화 콘텐츠를 결합한 미디어아

트, 체험형 사진 공간, 캐릭터를 활용한 외벽 연출 등 다양한 전시 공간 구성을 위한 전시설계 및 설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허영만 화백의 작품과 이야기를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구 미평역이 여수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사업은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주시의 주요 문화 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향후 본계약 체결과 전문업체 선정을 거쳐 기념관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허영만 화백은 여수 출신으로 오랜 기간 한국 만화계를 대표하며 다양한 작품을 선보여 왔다.

특히 음식과 사람, 사회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기념

관 조성은 허영만 화백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구 미평역이라는 공간의 역사성과 문화 콘텐츠가 어우러져 새로운 관광 명소가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관에는 허영만 화백의 대표작과 작품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방문객들이 작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화에 관심이 있는 관람객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해 여수만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시는 기념관이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빈 기자



허영만 기념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 시청 제공

/이유빈 기자

순천사랑상품권, 9~10월
추석맞이 15% 특별할인

순천시(시장 순호모)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 제29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163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올해 상품권 할인율을 상시 10%, 명절 등 특별기간에는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순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이 확대되면서 올해 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인 2,35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장비구리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추석 명절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이어지도록 유도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광양매화축제,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 전국 11위

광양매화축제가 전국 1,452개 축제를 대상으로 한 ‘한국 축제 매력도 지수’에서 전국 11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야놀자리서치가 발표한 ‘NOL 한국 축제 지수’에 따르면 광양매화축제는 종합점수 7.62점을 기록하며 전국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축제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해 지역 대표 축제로서의 저력을 보여줬다.

수십억 원대 예산이 투입된 대형 축제들과 나란히 최상위권에 오른 점도 주목할 만하다. 10억 원에도 미치지 않는 예산 규모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완성도와 방문객 경험의 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번 평가는 야놀자리서치와 미국 퍼듀대학교 CHRIBA

연구소, 경희대학교 H&T 애널리틱스센터가 공동 수행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에 축적된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를 분석해 축제의 인지도와 매력도를 측정했으며, 실제 방문객의 경험과 인식을 반영한 데이터 기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양매화축제는 매년 가장 먼저 봄의 시작을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꽃 축제다. 섬진강과 백운산 자락을 따라 펼쳐지는 33만㎡ 규모의 매화 군락과 빼어난 자연경관, 지역의 문화와 미식, 차별화된 체험 콘텐츠를 바탕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광양시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축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봄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총력

곡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군은 옥과전통시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8월 말까지 주요 하천과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 14일 옥과전통시장에서 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을 펼쳤다.

참여자들은 군민과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상행위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압록유원지, 도립사계곡, 태안사계곡, 청계동계곡 등 4곳을 중점관리대상지역

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환경과, 산림과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반은 주요 하천과 계곡을 순찰하며 불법 상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무단점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과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많은 피서객이 곡성의 하천과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일규 기자

구례5일시장 무더위 속 시원한 손길, 얼음물 식혜 나눔행사 열려

구례군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구례5일시장 일원에서 지역 봉사단체 산애살에 주관으로 ‘얼음물·식혜 나눔행사’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애살에 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해 얼음물과 식혜 1000여 개를 준비, 무더위 속 장을 찾은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갈증 해소를 도왔다.

이날 현장에는 문승옥 구례군의회 의장, 김우정 부의장, 서연희 의원도 함께해 폭염 속에서도 생업을 이어가는 상인들과 장을 찾은 주민들을 격려했다.

한편 산애살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삼일절을 맞아서는 독립유공자 박경현·왕재일 선생의 동상 환경정비에 나섰으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현충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

다. 마산면 냉천경로당, 지리산국립공원, 구례동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4개 장소에서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등 ‘은기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군 관계자는 “무더위에 지친 상인과 주민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눔에 나서주신 산애살에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폭염으로부터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피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애살에 박만우 회장은 “폭염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는 상인들과 장을 찾아주시는 주민들께 작은 힘이 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심선섭 기자

